5.1절 만세

소년단

1958. 5

소년단원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힘든 일을 솔선해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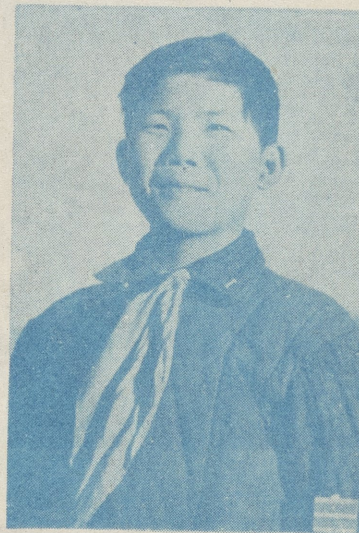
평남 개천 인민 학교 대 제11 분단 박 종우 동무는 가정과 학교에서 언제나 힘든 일을 솔선해서 하는 소년단원이다.

그는 인민 군대에 나가 전사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직장에 나가 일하시는 어머니의 일'손을 덜기 위해 항상 집안 일을 돌보군 한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가기만 하면 그는 때일 나무를 마련하고 물도 길어 놓으며 뜰을 말끔히 청소한 다음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초중에 다니는 누나가 돌아 와서 저녁밥을 지을 때면 으레 불을 때주며 누나 일을 돕는다.

종우 동무는 분단 일에서도 힘든 일은 스스로 맡아 하고 있다.

지난 해 분단 열성자로 선거 받은 그는 교실 청소나 오물장 청소 같은 일에도 늘 모범을 보이고 있다.

11분단이 교실 청소에서나 환경 정리에서 항상 학교 내 모범 분단으로 되고 있는 데는 종우 동무의 힘이 많이 들어 있다.

로력을 사랑하는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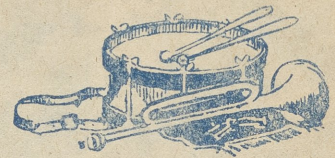
강원도 문천군 덕원 중학교 대 제1 분단 엄 두찬 동무는 그 누구보다도 로력을 사랑하는 동무이다.

올 봄에도 언 땅이 부실부실 녹기 시작하자 두찬 동무는 곧 학교 뒤에 있는 소년단 보호림에 올라 갔다. 지난 해 자기들이 심었던 묘목들이 겨울 동안에 상하지나 않았는가 해서였다. 그 후 분단에서는 두찬 동무의 의견을 듣고 선참으로 소년단 보호림의 나무들을 바로 잡아 주며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북을 밟아 주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새 묘목도 더 떠다 심었다.

이뿐이 아니다. 오성봉 농업 협동 조합의 퇴비를 운반해 줄 때도, 관개 공사를 돕는 일에서도 항상 다른 동무들의 모범이 되였다.

지난 전쟁 시기 원쑤놈들에게 학살당한 아버지의 애국의 뜻을 이어 이렇게 두찬 동무는 학습과 로력을 사랑하고 있다.

소년단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5호 내용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는 소년단원들

새벽부터 민주 수도 평양의 거리는 건설의 노래'소리로 들끓는다.

《사랑하는 민주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고 훌륭히 건설하자!》라는 붉은 색 프랑카드가 봄'바람에 펄럭이는 건설장마다에서는 밤과 낮을 이어 불꽃이 튄다. 날을 따라 거리거리에는 4—5층 집들이 즐빗하게 일어나고 가로수는 푸르러만 간다.

스피카에서는 아침 6시를 알리는 데 쓰딸린 거리에는 벌써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 비'자루를 들고 나타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소년단원들은 제 일처럼 아침마다 거리를 말끔히 쓸어 나간다. 어떤 동무들은 가로수에 물을 주기도 하며 꽃밭을 돌보기도 한다. 시간이 갈 수록 거리는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진다.

련광정과 모란봉에서 그리고 골목길에서도 이런 소년단원들은 수없이 만날 수 있었다. 이렇듯 평양시 내 소년단원들은 지난 날 소년단 단체 련합 모임에서 공화국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도와 나서자고 호소한 결의 실천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이들은 조선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가 제시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우람찬 설계도를 펼쳐 들고 그 실천에 떨쳐 나선 로동당원들과 민청원 형님, 누나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힘쓰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앞날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준비하기 위하여 어느 때 보다도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어느날 하루 수업이 끝났을 무렵 우리는 팔동교행 뻐스를 타고 제 41 중학교를 방문하게 되였다.

먼저 우리는 운동장에 있는 게시판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속보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다.

《〈조 중 친선〉 분단인 18분단에서는 중국 인민 지원군 렬사 묘지를 가꾸었다》.

《쩌므르 소년 부대의 활동은 계속된다》.

《제 4 분단에서는 토끼 천 장을 만들었다》.

수령 연구실에서도 우리는 많은 소년단원들을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 《끄마 5개년 계획》활동에서 얻은 돈으로 김 일성 원수님의 동상을 세웠고 자기들의 힘으로 김 일성 원수 혁명 활동을 연구하기 위한 스크랩프도 만들었다.

대에서는 김 일성 원수님의 생가 방문,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 견학, 혁명 투사와의 상봉, 소설 《만경대》에 대한 읽은 책이야기 모임 등을 통하여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고귀한 혁명 전통을 배워 나가고 있다.

지난 날 평양시 소년단 단체 련합 모임 이후 이 학교 대에서는 《번영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돕자!》는 대 모임을 가지고 《누가 먼저 좋은 일을 하는가?》라는 경쟁을 하고 있었다.

평양시 소년단원들과 함께 평양시 건설에 나선 민청원 형님들에게 《소년호 기중기》 한 대를 보내게 된 기쁨과 자랑은 자못 크다.

올해에도 이들은 《끄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더 잘하여 근로자 아저씨들에게 《소년호 렬차》를 보내 드리자고 공화국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호소한 결의를 꼭 해내고야 말겠다고들 말한다.

지금 이들은 학교 주변과 공지를 일구고 한 사람이 열 포기의 해바라기와 피마주를 가꾸고 있다.

피마주 한 대에서 3키로그람, 해바라기 한 대에서는 2키로그람 이상 수확을 거두기로 한 이들은 저마다 관찰 일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양어장도 만들어 놓았다.

양어장에서는 고기 기르는 법을 배우면서 비료로 쓸 개구리도 기르려는 것이다.

1,300 여 평의 실습지에서는 파종이 한창이다. 실습을 통하여 재배 식물에 대한 선진 영농법을 배워나가는 기쁨은 농촌에서 자라는 소년단원들에게 못지않게 장차 발전해 나가는 우리 나라 농촌에 나가 보람차게 일할 결심들을 다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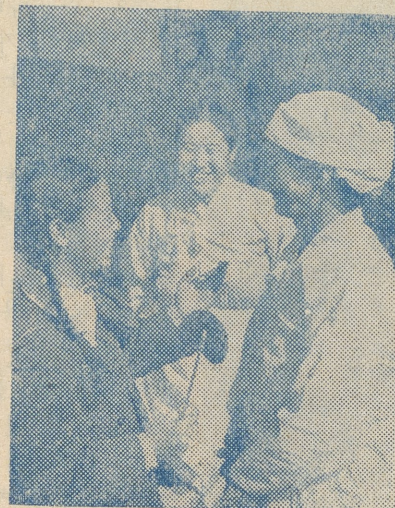
오는 일요일에도 이들은 평궁 농업 협동 조합에 나가 랭상모를 옮겨 드릴 계획을 하고 있다.

못을 박는 소리, 대패질 소리가 신이 나게 들리는 공작실에서는 공작 크루쇼크 원들이 책꽂이와 드레박을 만들고 있었다.

구슬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일'손을 재는 소년단원들의 귀여운 얼굴에서 우리는 장차 사회주의 조국의 믿음직한 기술 일'군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정성 담아 이들이 만든 책꽂이, 휴지통, 드레박 등은 애국 렬사 가족들에게 보내 드릴 선물이라는 것이였다.

평양 제 3중 학교에서도 우리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례절 있게 행동하는 소년단원들을 만났다.

저마다 파리채를 들고 다니면서 파리와 모기를 잡는 것이 습관으로 된 이들은 더러운 병균을 옮기는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을 한 사람이 5천 마리 이상씩 잡고 있다.

뻐스에서, 영화관에서도 우리는 이 학교 끄마 선전원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리 철호 동무와 조 강석 동무는 수시로 영화관에 나가 우리 당이 내놓은 시책을 선전하며 민주 수도 평양을 아름답게 꾸리며 교통 질서를 잘 지킬 데 대하여 훌륭히 이야기하군 한다.

민주 수도에서 자라며 배우는 행복과 영예를 간직한 평양시 내 소년단원들은 수시로 소년호 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설장을 찾아 가서 노래와 춤으로 근로자 아저씨들을 위안해 드리며 힘껏 돕고 있다. 얼마 전에도 평양 제 41중학교 소년단원들은 건설장에 모래와 자갈을 운반해 드렸다. 며칠 동안에 이들이 도운 것만해도 자동차 3 대가 20 여일이나 운반해야 된다고 한다.

해가 저가는 아동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유쾌히 웃으며 뛰놀고 있다. 미끄름'대를 타며 그네를 뛰는 애들을 보고 이젠 그만 놀고 집으로 가자고 소리치며 나오던 소년단원들 한 패는 건설장에서 기중기를 돌리는 운전수 아저씨에게 손을 내저어 흔든다.

하루 동안에도 조립식 건설을 하는 공사장에는 아침에 없던 큰 건물이 일며 서고 있다.

사랑하는 민주 수도 평양은 날에 날마다 아름다워지며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으로 꽃피여 가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오늘과 같은 행복을 가져다 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고저 더욱 씩씩히 배워나가는 평양시 내 소년단원들의 《끄마 5개년 계획》 활동은 6. 6절을 앞두고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수도 건설에 나선 민청 형님들

민주 수도 평양은 지금 우람찬 건설의 노래로 들끓고 있다.

평양의 어느 길, 어느 골목이건 건설—오직 건설로 들끓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심장이며 노래인 민주 수도 평양은 날이 바뀌일 때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층 건물들로 즐비해 가고 있으며 거리와 공원마다에는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단장되여 가고 있다.

이제 우리와 같이 아름다운 민주 수도 평양의 거리를 거닐어 보기로 하자

쓰딸린 거리와 인민군 거리 그리고 동평양과 서평양에는 바야흐로 1 만 7 천여 세대의 숫한 주택들이 조립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 아동 공원은 물론 유원지도 건설된다.

얼마 전에 민청 형님들은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민주 수도 건설에 필요한 로력을 85% 이상 자기들이 맡겠노라고 결심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지금 평양의 거리와 골목마다에는 작업복 차림도 믿어운 청년 학생 형님들의 힘찬 건설 모습을 볼 수 있다.

얼굴에 질펀한 땀도 씻을 사이 없이 어떤 형님들은 연성 곡괭이를 놀려 굴착 작업에 여념이 없었고 어떤 형님들은 부재 생산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록음이 짙어 가는 인민군 거리를 보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휑한 공터이던 그 자리에 오늘엔 6 층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청년 건설장》이 일떠 서고 있다.

그 맞은편을 보라! 거기에는 형님을 따르는 동생마냥 《소년호 건설장》이 마주 서 있다.

소년호 건설장! 여기에는 바로 평양시 소년단원들이 지난 해 《꼬마 5 개년 계획 활동》에서 번 돈으로 평양시 건설자 형님들에게 보낸 《소년호 기중기》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성 제 1 건설 트레스트 62호 건설장인 《소년호 건설장》의 굴착 작업에 동원된 기계 전문 학교 김 팔익 형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귀여운 동생들의 정성과 땀이 스미인 기중기를 선물 받고 모두 감격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동생들의 정성에 보답하고저 작업에 나선 3월 21일부터 열흘 간에 206%의 능률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금 건설 대학에서는 264%를, 무용 학교에서는 231%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할 결심들입니다》.

그러자 김책 공업 대학 운수 중대 리동철 형님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수건으로 문지르며 건설에 흥겨운 건설장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저걸 보십시요, 얼마 전에 우리들이 굴착한 저 건설장에는 지금 312 세대나 들어 갈 수 있는 새 아빠트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곳에서 살림을 하게 될 시민들은 언제나 우리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면 우리들은 참으로 사회주의 건설자의 영예를 다시금 자랑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그것은 동철 형님의 마음일뿐만 아니라 바로 민주 수도 건설장에 나선 형님들이나 송남 탄광으로, 강계 발전소로 달려 간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한결 같은 마음일 것이다.

조선 로동당의 부름에 따라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 나아가는 민청 형님들은 사회주의 건설자의 영예를 간직하고 건설, 오직 건설 이 하나의 길로 힘차게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민주 수도 평양시 건설에 일떠선 민청 형님들은 지난 날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결의한 그 목표를 향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건설의 돌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 해만 지나 보라!

그때의 민주 수도 평양은 오늘의 몇곱절로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살기 좋고 행복한 락원으로 변할 것이다.

학습은 사회주의 조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한다

본사 기자 최 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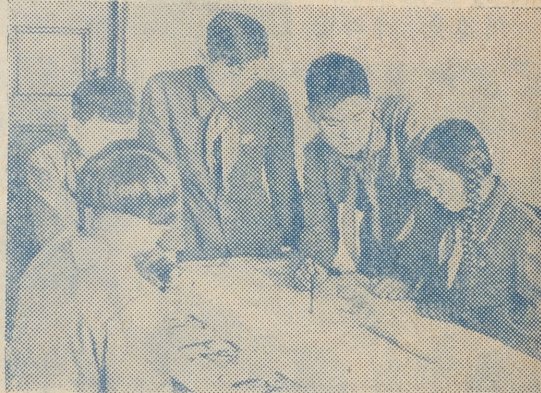
사진 리 종록 촬영

나는 얼마 전에 개성 시내 여러 학교 소년단원들을 찾아가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학습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개성 시내 학교 소년단 열성자들의 좌담회에 참가하여 그들이 학습을 잘 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잘 알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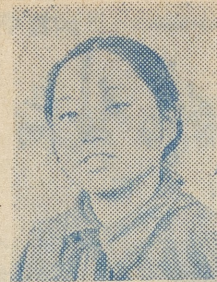
자남 인민 학교 대에서는 학습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학습을 꾸준히 하지 않는 일부 소년단원들의 그릇된 학습 태도를 고쳐 주기 위하여 공장 견학을 조직했습니다. 개성 직물 공장에 견학 가서 로동자들이 천을 더 많이 짜기 위하여 1분 1초를 아끼며 일을 더 잘 하기 위하여 기술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 온 소년단원들은 45분을 귀중히 여기게 되였으며 학습을 꾸준히 하게 되였습니다.

사직 중학교 대에서는 《학습》이라는 회람 신문과 회람 벽보를 만들어 동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람 신문과 회람 벽보에는 분단들에서의 학습을 위한 사업 경험, 상급 학년 동무나 우수한 동무의 학습 경험을 소개하며 한편 시험 때 남의 것을 보고 쓰거나 학습을 게을리 하는 현상들을 비판하는 글과 만화를 실리군 했습니다. 소년단원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현상 문제도 냅니다. 이 회람 벽보와 신문은 대 벽보 편집 위원회에서 1개월에 1회씩 발간하는데 분단들에서는 이 회람 신문과 벽보를 통하여 제 때에 자기들의 경험과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학습을 잘 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자 고급 중학교 대 동무들은 학과 별로 실험실을 잘 만들었고 도서실에 수많은 도서를 마련하고 독서 모임을 자주 조직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직 중학교 대에서는 《학습》이라는 회람 신문과 벽보를 만들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최우등생들 △

사직 중학교 유 현자

사직 중학교 림 숙자

선죽 중학교 렴 동실

남자 고중 박 영구

녀자 고급 중학교 대에서는 반 생활을 잘 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특히 반 생활에서는 로어 단어 카트 놀이 지도 놀이 등 학습을 위한 유희를 잘 하였습니다.

고려 중학교에서는 몹쓸 장난에 휩쓸려 다니며 학습을 태만하는 동무들을 부단이 돕고 타일러 학습에 취미를 부치도록 하였고 후방 가족이나 애국 렬사의 자녀인 동무들이 집'일이 바빠 학습에 지장이 있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도와 주며 다 같이 공부 잘 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을 소홀히 하며 학습을 미루고 미루다가는 시험 때를 앞두고 벼락식으로 밤을 새워 가며 공부하던 일부 동무들도 자기의 결함을 고치고 꾸준히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 중학교 12분단 동무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민 학교 때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으로만 학습해 왔는데 벌써 잊어버린지 오랬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모든 과목이 인민 학교 때 배운 것과 련결되여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매우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운 문제들을 제 때에 복습하며 실험과 실습으로 배운 지식을 다지기에 힘쓰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사직 중학교 림 숙자 동무도 작년 인민 학교 졸업 시험 때 시험에 나오리라고 생각 되는 문제만을 골라서 공부했기 때문에 늘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좌담회에서 자기의 그릇된 학습 태도를 후회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숙제를 하지 않고 선생님이 질문하게 되면 남의 노트를 보고 대답하는 동무들도 있고 취미에 맞는 한 과목에만 치우쳐 공부하거나 학습을 태만하다가 시험 때 가서 남의 것을 보고 쓰려는 일부 동무들이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좌담회에 참가하였던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들은 이런 결함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소년단원들이 학습하는 목적을 똑똑히 모르는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좌담회에서 이야기된 좋은 경험들을 본 받을 뿐만 아니라, 학습 목적을 똑똑히 알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녀자 고급 중학교 대에서는 반에서 로어 단어를 쓴 카트 놀이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좌담회에서는 오늘 우리 소년들이 행복하게 마음껏 배울 수 있게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베풀어 준 배려에 보답하며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을 전체 소년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자고들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공장, 농촌 등 일터에 나가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 하기 위한 것인 것만큼 실험 실습은 물론 부근에 있는 공장과 농업 협동 조합을 견학하며 어른들의 일을 도우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굳게 다지자고 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행복

로력 영웅 **박 진 환**

나를 찾아 서흥 광산에 오는 소년단원 동무들은 나에게 《해방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군합니다. 그러면 나는 해방 후 글 배우던 이야기부터 하군합니다.

나는 해방 후에도 얼마 동안은 《로동이나 해 먹는데 글을 배워 무엇하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민청 회의에서 눈물이 쏟아지도록 비판을 받았습니다. 《글을 왜 배우지 못 했는지 아는가?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는 것을 잊었는가? 다시 해방 전처럼 살고 싶으냐》… 이렇게 퍼붓는 물음에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머지 한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헤여져 살아야만 하던 눈물 겨운 생활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부모는 품팔이로 떠다니며 살았고 나는 어려서부터 문 술려라는 지주놈의 머슴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민청 회의에서 비판해 준 동무들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 때부터 나는 일하다 쉬는 짬에도 글을 배웠습니다.

동무들도 나의 글 공부를 늘 친절히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1947년에는 신문을 읽게 되였습니다. 나는 글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로동당의 지도로 우리 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는 것을 똑똑히 배웠으며 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 나는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광석을 캐 낼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면서 일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브리가다가 조직되기는 했으나 착암수 한 사람에 조수 한 사람씩이 한 패가 되여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자기들만 많이 캐려고 하는 나머지 힘껏 일했으나 전체로 보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도우며 일하자고 했습니다.

나의 이 의견은 민청원들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찬성하는 민청원들 49명으로 1956년 2월에 종합 브리가다를 조직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도우며 일하니까 로력을 아끼면서 광석을 많이 캘 수 있었고 자재 운반과 광석 운반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서로 도우며 일하니까 기술도 빨리 배울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일을 배워 할 수 있게 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해 계획을 8.15까지 완수했습니다. 이리하여 종합 브리가다에서는 지금 291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전보다 2 배 이상의 일을 해냅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나라에 이바지하니 좋고, 우리 생활이 더욱 행복해지니 좋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종합 브리가다원들이 저금하는 돈은 한 달에 4~5만 원을 넘습니다. 해방 전에 언제 우리 로동자들이 생활하고 남는 돈을 저금해 보았겠습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위하여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는 15성상이나 일제와 싸워 이겨냈으며 또한 해방 후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로동당의 가리킴 따라 이룩해 놓은 귀중한 모든 것들을 미제 원쑤들로부터 굳게 지켜 싸웠고 오늘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땀흘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로동당은 나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입니다

로력 영웅 **주 범 선**

나는 평양 방직 공장에서 천을 짜는 로동자입니다. 지금 32 대의 직포기를 맡아 가지고 인민들의 옷감을 짭니다.

이 글을 읽게 될 소년단원들의 옷도 우리들이 짠 옷감으로 지은 것이리라 생각하면 나는 저절로 기뻐집니다. 나는 언제나 설날이요, 5.1절이요, 8.15 등…명절마다 새 옷을 입고 방긋거리며 학교로 가는 동무들을 생각하면서 일'손을 재웁니다.

그러나 나는 동무들과 같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못 가졌었습니다. 지주의 땅을 빌어 농사 짓는 가난한 집에서 나서 자란 나는 명절 날에도 옷이 없어 바깥에 못 나가고 찢어진 문'구멍으로 명절 놀이하는 밖을 내다 볼 뿐이였습니다. 물론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해방될 때까지 글 한자 모르는 문맹자였습니다.

지은 낟알을 지주놈 한테 다 빼앗기고 한 해를 굶다싶이 지내는 살림에 어떻게 학교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학교는 커녕 나는 열살 때부터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 때 아버지가 지주놈한테 구박 받고 모욕당하던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때 속으로 울었습니다.

근로 인민이 헐벗고 굶주려야 하던 그 세상은 끝장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로동당은 나에게 글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마음껏 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찌그러져 가던 초가집에서 살던 나는 지금 3층 아빠트에서 삽니다.

나는 한 오리의 실이라도 아끼고 기계를 사랑하면서 10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8,700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여 1억 1천 만 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습니다.

바로 로동당이 나를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동당원으로, 로력 영웅으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키워 주었습니다.

참으로 로동당은 우리 아버지이며 어머니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배우며 일하며 잘 살게 된 것은 로동당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조국의 주인으로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로동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로동당을 반대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한 반당 종파 분자 최창익 도당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과 같은 조선 인민의 원쑤입니다.

나는 전체 근로 인민들과 함께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한 조선 로동당과 사회주의 조국에 더욱 충성하기 위하여 맡겨진 일을 더 잘 하겠습니다.

더욱 기술을 배워서 3 대의 직포기를 더 맡아가지고 한 사람 앞에 18메트르 이상의 천이 차례질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것을 약속합니다.

원산 제네스트 참가자 리 만 화

그림 림 영 환

나는 29년 전의 이야기를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하게 됩니다. 비록 오래 전 일이지만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배우게 될 것 입니다.

원산 제네스트라고 불리우는 로동자들의 투쟁! 이것은 일제와 자본가를 반대한 우리 로동자들의 용감한 투쟁이였습니다.

그 때의 세상 형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그 때 우리 나라는 강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강점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조선 인민을 갖은 천대와 멸시를 했고 그리고 착취를 다 하였습니다. 인민들은 나날이 가난해졌으며 죽마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풀 뿌리를 삶아 먹고 나무 껍질과 쑥떡 그리고 짐승을 잡아 먹으면서 겨우 살아 가는 형편이였습니다.

나는 그 때 원산에 있는 《국제 통운 회사》에서 가혹한 부두 로동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면 밤 10 시까지 피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한 달 동안 받는 돈으로는 열흘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 자본가들이 우리 피를 빨아 먹고 등을 갉아 먹었던 것입니다.

1월 초순 어느 날이였습니다. 전날 밤 11시까지 일하고 밥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뼈마디가 막 쑤시였고 몸은 지긋지긋 아팠습니다. 그 날 나는 로동을 그만 두려고 했으나 일을 하루 못하면 집 식구들에게 더 큰 불행과 굶주림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근하면 왜놈 경찰들이 야단치며 끌어냈던 것입니다. 일에 지친 다리를 끌며 일하려 나갔습니다.

날씨는 침침했고 파도는 흰 방울을 날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날도 130키로그람이 넘는 무거운 짐짝들을 등으로 져 나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깊은 배칸에서 짐짝을 날라다 뭍에 쌓는 일입니다. 아침도 먹지 못한 지친 몸으로 무거운 짐짝을 질머지고 휘청다리를 올라 갈 때면 땅이 팽글팽글 돌아갔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15시간 일하고도 하루 25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집 네 식구가 한 끼나 겨우 먹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집세를 비롯하여 이름 모를 세금이 많았고 물건 값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듯 비싸갔습니다. 우리집 식구들은 해질 때로 해진 옷 한 벌로 살았으며 차거운 방'바닥에 거저기를 깔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만 있은 일이 아닙니다. 침침한 원산 거리에는 먹지 못해 피'기없이 여윈 사람들과 얼굴이 퉁퉁 부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녔습니다.

우리 부두 로동자들은 이런 비참한 생활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짐 한 짝에 삯전을 2전에서부터 3전으로 올려 달라고 한결 같이 회사 측에 제기했습니다.

착취할 일에만 날뛰고 검은 자기 배'속만 채울 것을 생각하는 번대머리 왜놈 화주 (짐주인)는 로동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질 않았습니다.

기름이 번질번질한 낯짝을 내 두르며 우리 부두 로동자들을 학대해 온 일본 놈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머리 끝까지 찼던 우리 450 여명의 부두 로동자들은 문평에 있는 라이징산 석유 회사 로동자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1929년 1월 13일 아침에 동맹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원산 부두와 거리에는 일제를 반대하는 군중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라》.

《단체 계약을 체결하라》.

《로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달라》.

우리 부두 로동자들에 의하여 일어 난 동맹 파업은 원산시 내 크고 작은 36 개의 기업소 로동자들의 열화같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파업은 원산시 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60 여명의 목공 조합원들은 무쇠 갈구리와 곡괭이를 휘두르며 《왜놈들을 없애라》, 《로동 임금을 높이라》 하고 구호를 높이 웨쳤습니다.

많은 로동자들의 파업 중에서도 원산 철공 조합 로동자들의 투쟁은 일제놈들을 전률케 했습니다. 150 여명의 철공 조합 로동자들은 프랑카트를 들고 혁명가를 부르며 서로 팔을 끼고 거리로 밀려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온 이들은 패를 지어 눈에 띄우는 기업주들과 경찰놈들을 총칼의 위협도 헤아리지 않고 두들겨 팼으며 몇 놈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에 일본에서 건너 온 《입신환》을 비롯한 16 척의 큼직한 기선들이 부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는 짐짝 하나 부리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옥백미를 싣고 일본으로 도망쳐야 하겠는데 쌀을 실어 줄 로동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천 부두 로동자들을 속이여 데려다 일 시키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쌀을 실으려 왔던 일본 배들은 원산 부두 로동자들의 혁명적 기세에 놀래여 끝내 원산에서 쌀을 싣지 못하고 도망쳐 갔습니다.

이렇게 원산 제네스트는 3 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였습니다.

로동자들 속에서 혁명의 기세가 높아지게 되자 일본놈들도 황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로동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으며 시내에 계엄령을 내리고 개새끼도 얼씬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두 로동자들과 시내 각 기업소 로동자들은 조금치도 기세를 죽이지 않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원산시 내 로동자들의 이와 같은 용감한

투쟁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를 증오하며 반대하는 인민들의 힘찬 성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 각지 로동자들은 푼전을 모아 많은 동정금을 보내 왔습니다. 군산 철도 로동자들은 하루 임금의 절반을 짤라 파업 의연금으로 보내 왔으며 강원도 덕원군과 안변군 농민들은 많은 쌀과 나무를 보내여 우리 로동자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지지와 축하를 받게 되였습니다. 쏘련, 일본과 불란서의 선진적 로동 계급들은 격려문을 보내여 원산 로동자들의 총 파업 투쟁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이에 질겁한 일제 경찰들과 헌병들은 로동자들의 투쟁을 짓밟아 버리려고 날뛰였습니다. 놈들은 닥치는 대로 로동자들을 붙잡아 가두었으며 진실한 애국자들을 꺼리낌없이 학살했습니다. 《조선 총독》은 원산 총 파업을 진압하기 위하여 많은 병력을 원산에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일제의 이와 같은 혹심한 탄압을 무릅쓰고 원산 로동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탄압과 굶주림을 이겨 가면서 파업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원산 로동자들은 결사대를 조직하고 밤이면 삐라를 뿌리고 식량 창고와 경찰 주재소, 공장주들의 집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산 로동자들의 파업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무장 헌병과 경찰들의 폭압이 심해진 데다가 파업단 지도부 내에 기여든 불순 분자들이 왜놈에게 변절 투항하고 파업 투쟁을 망쳐 먹은 데 있습니다.

로동자들은 방방 곡곡에서 보내 오던 동정금이 오지 못하게 되고 파업에서 필요한 기금이 떨어지게 되자 부득이 파업에서 당분간 물러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만일 그 때 오늘과 같은 강력한 당의 지도가 있었더라면 파업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최 창익과 같은 종파 분자들이 파벌 투쟁에만 눈이 어두워 날뛰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 창익과 같은 종파쟁이들의 죄악은 바로 이렇게 엄중한 것입니다.

원산 제네스트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대 파업이였습니다.

이 파업은 조선 인민들이 자기들의 행복과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령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로동 계급의 전투적인 위력이 급속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뵈여 주었습니다.

원산 제네스트는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의 가슴을 서늘케 했으며 우리 나라 인민들의 반일 투쟁 사상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속에는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와 용감히 싸워 이긴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과 더불어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들의 이와 같은 피어린 투쟁이 받쳐져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가란 어떤 놈인지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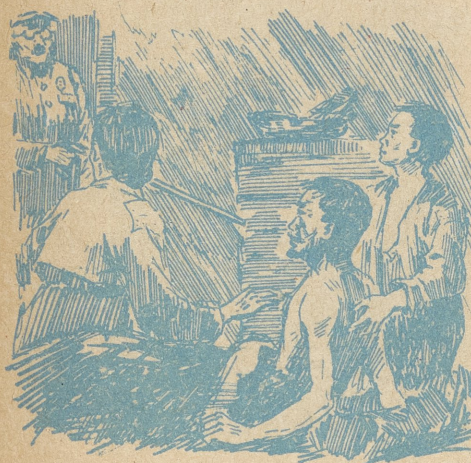
본사 기자 박 정렬　　　그림 남 현주

《아저씨는 30년 동안이나 탄광에서 일 하셨다지요?》

《아저씨는 자본가 밑에서도 일 하셨어요?》.

평양 제 53중 학교 대 제 4분단 익수 동무의 아버지를 둘러 싼 2반 동무들은 저마다 앞을 다투어 묻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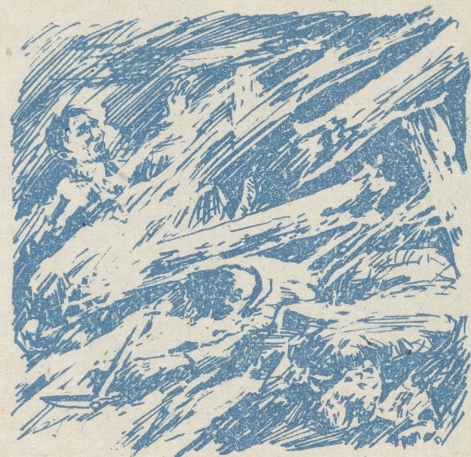
《그럼 해방되기 전까지야 자본가 놈의 종 노릇을 한 셈이지, 지금도 그 때의 탄광 주인놈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린다》.

사동 탄광 공훈 광부인 익수 동무의 아버지 (려 호필) 는 쓰라린 자기의 어린 시절이 다시금 회상되는 듯 이마에 굵은 주름'살을 지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1) 내가 열 다섯살 되던 해에 탄광 로동자인 우리 아버지는 보름 동안이나 앓아 눕게 되였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 앓아 누웠는 데도 탄광주 놈은 돌봐 줄 대신 이미 한 일 삯까지 잡아 떼지 않겠니, 그러니 우리 집 식구는 굶어서 얼굴이 팅팅 부었고 아버지는 백골이 다 되여 갔지, 그래도 탄광주놈은 일하러 안 나온다고 매일같이 야단을 치며 내 쫓겠다고 하였단다.

(2) 어린 나는 아버지를 도와 왜놈 자본가인 《시바다》라는 놈의 강동 탄광에서 날마다 14~16시간의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로동자들은 캄캄한 굴 속에서 동발을 나르느라고 낑낑거리는 나를 보고는 《몹쓸 놈의 세상이지. 저런 꼬맹이를 다 로동 시켜야 하니》하고 곧잘 놈들의 세상을 저주하였다.

(3) 처음에 나는 동발을 세우는 어른들을 도와 굴 속에 나무를 운반하였단다.

일곱자 일곱치나 되는 동발을 메여 나르는 일은 어린 나에게 너무도 힘 겨운 일이였지. 추운 겨울 어느 날이였다. 비지땀을 흘려 가며 동발을 나르던 나는 그만 지칠대로 지쳐 푹 꼬꾸라 졌구나. 그래도 탄광주 놈에게 붙어 물아 가며 로동자들의 등을 쳐 먹던 십장놈은 《이놈 빨리 일어나 뭘하고 있는거야 벌금이다 벌금!》하고 나의 팔을 후려 갈기며 사무실로 끌고 갔지.

(4) 밤이 이슥해서야 탄광을 나선 나는 눈 앞이 아찔하고 아래'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걸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 소금조차 없어 맨 물로 쑨 죽 한 사발을 먹고 나온데다 하루 종일 지치고 탄광주놈 한테서 채찍으로 매까지 맞았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지.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어 가며 가마니 뙈기를 둘러친 셰'방집으로 들어서자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5) 필천은 덜 드리고 많은 돈을 벌자는 욕심쟁이 자본가인 탄광주 놈은 탄광을 꾸리지 않고 석탄만 캐라고 하였다. 굴 속에 공기를 보내는 송풍기조차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굴 속은 숨이 탁탁 막혔고 썩은 동발을 제 때에 갈지 않아 자주 굴이 무너지군 하였다. 이리하여 석탄 캐던 로동자들이 목숨을 잃군 하여도 탄광주 놈은 그냥 굴 속으로 로동자들을 내 몰았다.

(6) 어디 그 뿐인가 탄광주 《시바다》란 놈은 우리 로동자들을 소와 돼지처럼 부리고 얼마 안 되는 임금마저 긁어 먹었단다.

그 놈은 로동자를 생각하는 체 하면서 탄광에다가 상점을 차려 놓고 외상으로 물건을 비싸게 팔았다. 그리고 임금 날에는 외상 값에 리자까지 덧붙여서 받아 냈단다. 그러니 로동자들은 임금날이 오면 돈 구경은 커녕 되려 밥사발까지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만 했지, 그렇지 않다간 또 경찰서에 끌려가야 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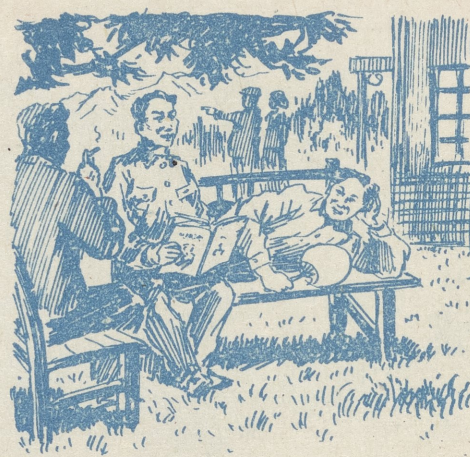
이렇게 그 때는 왜놈과 자본가놈들이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해 먹고 억누르는 세상이였다. 조금만 놈들의 눈에 거슬리면 경찰을 불러 대군 했단다.

(7)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탄광주와 감독 십장놈들을 때려 죽일 결심을 다졌다. 하루 아침 나는 갱 속에 들어 서자 도끼로 전화줄을 끊고 놈들이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때 마침 이 날도 탄광주 놈은 감독놈을 앞 세우고 나타났다. 나는 재빨리 두 놈을 갱속 깊이 끌고 들어가 실컨 때려 주었다. 일 하던 로동자들도 통쾌해서 막 달려와 놈들의 기름진 배를 짓밟아 놓았단다.

(8) 그 길로 강동 탄광을 떠난 나는 살 길을 찾아 헤매다 하는 수 없어 이름을 바꾸고 평양 사동 탄광에서 그 몸서리치는 탄광 로동을 또 해야만 하였다.

일제의 해군 연료를 캐 내는 탄광인 이 곳은 조선 로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더욱 심했지.

큰 쇠창문을 단 갱 내에 들어 서면 어마어마하게 무장한 왜놈 헌병놈들이 득실거렸단다. 어디를 가나 일제 놈들과 자본가 놈들이 우리 로동자들의 피땀을 빨아 먹기는 마찬가지였다.

(9)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는 석탄을 캐는 우리들에게 해 마다 양복과 신발 그리고 고기, 기름 등 많은 물건을 무상 혹은 헐값으로 주고 있다.

너희도 구경 했지만 지금은 갱 속에서 일해도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마음 놓고 일한다. 하루 7시간 로동을 하고도 우리는 해마다 한 달씩 휴가를 받고 휴양소에 가며 또 정양소에도 간다. 이 처럼 우리들이 행복한 것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로동자들이 일터의 주인이 되여 사회주의를 세워 나가기 때문이다.

(10) 그런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동지를 틀고 있는 남조선에는 아직도 자본가놈들이 로동자의 피땀을 빨아 먹고 있구나, 하루바삐 통일되여 그들도 우리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여야 하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장차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기둥이 될 너희들도 더 열심히 배워라!

은혜로운 중국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을 보내며

송영학 로인은 이 백년 동안 대대로 내려 온 귀중한 표주박을 철거하는 지원군 아저씨에게 선물로 드리였다. ↓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기치 높이 들고 우리를 피로써 도와 준 지원군 아저씨들은 우리 조국이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을 바라면서 고국으로 돌아 가신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산과 들에 거리와 마을에 가지가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남기고 떠나는 아저씨들을 조선 인민은 형제적 사랑과 친선의 정으로 열렬히 환송한다.

은혜로운 아저씨들의 길이 빛날 은공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 지원군 아저씨들을 성의껏 원호하여 그들로부터 어머니라 불리운 류매 할머니는 지원군 아저씨들과 석별의 인사를 나눈다.

← 지원군 아저씨들을 환송하러 나온 조선의 국제주의 렬사 박재근 로인의 가족들.

부디 안녕히 가세요!

—지원군 아저씨들을 환송하는 역두에서—

3월 12일 오후 역 광장과 골목들에는 철거하는 지원군 아저씨들을 환송하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직 기차가 도착하기까지에는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 있다.

곳곳에서는 《웅혜야》춤이 벌어지고 그것이 끝나면 또 《양걸》춤이 벌어진다.

환송 나온 사람들은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들 지원군 아저씨들을 얼싸 안고 돌아 간다.

군중들 속에는 지원군 부대장 아저씨와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어머니와 소년단원이 있었다.

이 소년단원은 류 대원 동무였다.

× ×

1954년 겨울 어느 날이였다.

개천 구읍 인민 학교 1학년에 다니던 류 대원이는 자기 동무들과 함께 남천강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다 그만 얼음 구멍에 빠져 들어 갔다.

때 마침 트럭을 타고 다리를 지나던 지원군 주 영복 아저씨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급히 뛰여 내렸다. 아저씨는 옷도 벗지 못한채 곧 얼음 속에 뛰여 들어 대원이를 건져냈다. 그 후 대원이가 회복될 때까지 아저씨는 짬만 있으면 찾아 와서 간호해 주었다.

죽음에서 살아난 대원이는 생명의 은인인 주 영복 아저씨를 친 형님처럼 여겨 왔고 주 영복 아저씨 역시 대원이를 친 동생처럼 사랑해 주었다.

주 영복 아저씨는 딴 부대로 이동되여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대원이와 그의 어머니는 지난 날 아저씨가 계시던 부대가 철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30리 길을 떠나 이렇게 찾아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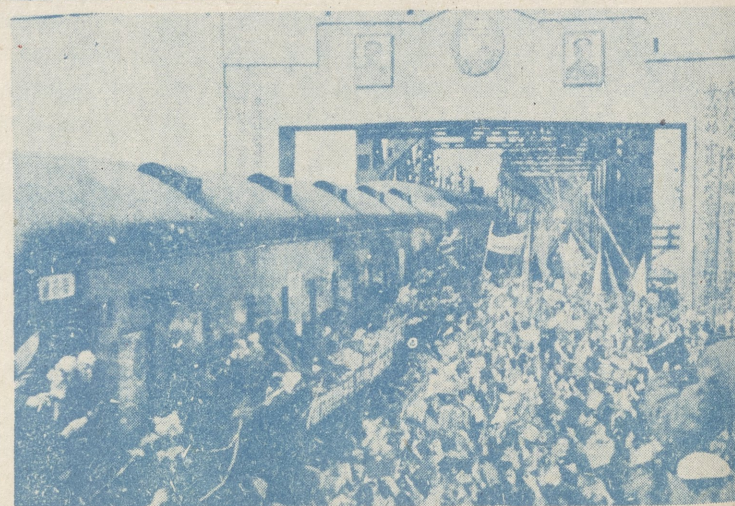
기차가 다달으자 대원이와 그의 어머니는 차마 놓을 수 없는 손'길을 풀고 부대장 아저씨에게 정성 담은 선물—명주 한 필을 드리였다. 《부디 안녕히들 가세요》

대원이는 이렇게 웨치며 어머니와 함께 은혜로운 아저씨들을 오래오래 손저어 바래는 것이였다.

원산시 내 소년단원들은 철거하는 지원군 아저씨와 싸인을 교환하였다.

철거하는 지원군 아저씨에게 어린이들은 꽃보라를 뿌리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중국 인민 지원군 용사들을 열렬히 환송하는 조선 인민군 전사들.

신의주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며 신의주—안동간 철교를 통과하는 지원군 부대들.

회상기

지원군 아저씨는 나를 살려주었어요

개성시 남자 고급 중학교 초급반 1의 2
정 승 진

내가 열살되던 해 (1952년) 지금 룡제선 마을인 판문군에서 살던 때 일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오던 길에서 지원군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아저씨!》 하고 그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이 아저씨는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아저씬데 나를 친 동생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저씨와 나는 손을 맞잡고 항미 원조의 노래를 중국 말로 유쾌하게 합창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산 넘어에서 미국놈의 비행기가 날아 오더니 곳곳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군 아저씨는 나를 꽉 그러 안고 엎드릴 곳을 찾았습니다. 폭탄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나와 아저씨는 쓰러졌습니다. 캄캄한 먼지 속에서 《승진! 승진!》하고 안타깝게 부르며 내 머리를 흔들어 보시는 아저씨의 모습을 꿈같이 느낀 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위생복을 입은 지원군 군의 아저씨가 웃는 낯으로 나의 머리를 짚어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지원군 병원에 와 있다는 것을 이 때야 알았습니다.

나는 나와 같이 폭격을 당하던 지원군 아저씨가 어떻게 되였는지 걱정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의는 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안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 후에 아저씨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아저씨는 계속되는 폭격 속에서 나를 자기 몸으로 가리워 주시다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저씨는 피가 심하게 흐르는 몸으로 나를 안고 병원까지 와서 《이 조선 어린이를 꼭 살려 주십시요》 하고 한 마디 남기고는 숨을 넘기시였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군의는 울지 말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였습니다.

그 때 나의 부상도 심했습니다. 파편에 온 몸을 상한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퍽 쇠약해졌습니다.

지원군 군의는 나에게 자기의 피를 수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 해 치료해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머리 맡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 과자와 과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것을 먹을 때마다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몇 달 후에 퇴원하여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지원군 아저씨들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원군 아저씨들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를 구해준 아저씨들의 모습이 자꾸만 머리에 떠오릅니다.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이 본국으로 돌아 가서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글을 쓴 정 승진 동무

교침: 소년단 3호 《어린 투사들》 사진에서 한호경은 류영옥과 바뀌였음
소년단 4호 《제일 귀중한 것》의 학교 이름은 홍남 제3중학교임

사회주의 락원에서 우리는 살게된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위대한 전망—
전력총생산량
97억 키로와트시 이상
공업총생산액
2.6배 이상
원목 290만 입방메터
122만
석탄 생산량
2.4배 이상
알곡 생산
376만 톤 이상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
화학 비료
63만 톤 이상
비료
도시의 주택 건설
30만 호 이상
62만 톤 이상
국민 소득 2.2배
평화호
림영환 그림

우리들의 그림 페지

그의 뉘우침

평양 제 6 중학교
한 기연 그림

(1)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더 잘하자》라는 분단 모임에서 문삼이는 《우리 동네의 공터도 일쿠어서 해바라기, 피마주를 더 심어 나라'일을 돕자》고 말했다.

(2) 동무들은 문삼이가 내 놓은 의견 대로 다음 일요일 꼭 하자고 기뻐하며 돌아 오는 데 일하기 싫어 하는 창식이 만은 일을 더 하자는 문삼의 말을 좋아 하지 않았다.

(3) 동무들은 모두다 괭이, 삽, 들것들을 갖추어 가지고 밭 일쿠러 가는 데 창식이는 집에 일이 있어 못 가겠다고 핑게댔다.

(4) 동무들은 돌을 주어 내고 흙을 파 일쿠며 즐겁게 일하였다.
해바라기, 피마주 밭이 될 것을 생각하니 힘드는 줄 몰랐다.

(5) 창식이는 놀 동무를 찾지 못했다.
아동 공원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했으나 어쩐지 외로운 생각만 들었다.

일한 보람

식수하기는 싫어 하고

그늘에 찾아 들기는 좋아 한다

함남 함흥 제 6 중
한 규홍 그림

(6) 가을이 되였다. 밭을 일쿠며 해바라기를 심어 가꾼 동무들의 로력은 열매를 맺었다. 쟁반 같은 해바라기들을 거둬 들이는 그들은 일한 보람을 느꼈다.

(7) 문삼이네 분단은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고 대 벽보에 칭찬되였다.
창식이 만은 이것이 기쁘지 못하였다.

(8)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찾아온 창식에게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이제부터 동무들과 떨어지지 말고 함께 행동하라》고 타일러 주었다.

(9) 창식이의 뉘우침을 분단 동무들은 누구나 기뻐하였다.
창식이는 동무들과 함께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의 하나인 파철 수집에도 훌륭히 참가했다.

← 우리 고향의 자랑 《통군정》

평북 의주 제 7 중
문 인용 그림

도와 주는 줄 알았더니

《내가 가져다 주마》 해 놓고는 슬쩍 자기 학급에 뺏아 갔다.

신의주 녀고중(초급반) 장 윤섭 그림

보라! 미제의 만행을

남 현주 그림

(7) 사진을 보라! 이것은 밀장 당했다가 죽음에서 벗어난 13세의 소년 김 춘일이 상자 속에서 신음하던 시늉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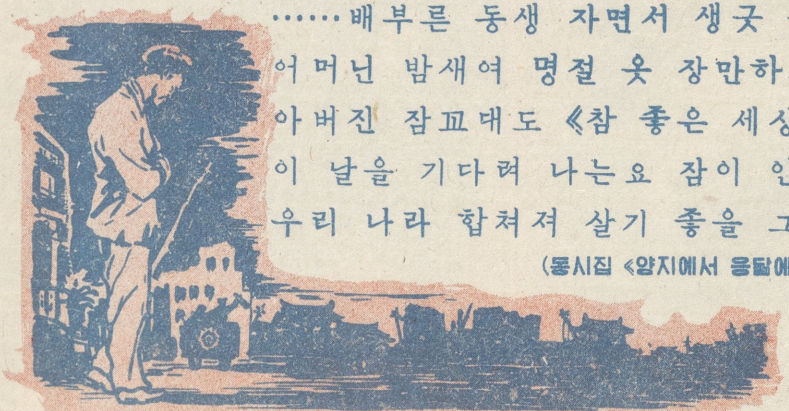
이 얼마나 악착하고 몸서리치는 짓인가! 이것이 바로 미군놈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다.

시 재 밤중에

글 : 서 만일　　　　그림 : 림 영환

덜컥덜컥 어디론가 달려가던 기차
어째선지 덜커덩 멎은 뒤 처럼
와자지껄 떠들던 바깥도 어연듯
밤은 깊어 죽은듯 조용했어요.

잠이 안와 조용히 누워 들으면—
까르룩까르룩 동생의 숨소린 금방 꺼질듯
흐드득흐드득 어머니의 숨소린 느껴 우는듯,
아버진 잠꼬대도《망할 놈의 세상같으니…》.

잠이 안와 고요히 누워서 보면—
판자 천정 틈새로는 별이 총총,
배 고파 잠 안오는 내 눈에서도
별은 총총 자꾸만 반짝거려요.

……배부른 동생 자면서 생긋 웃고
어머닌 밤새여 명절 옷 장만하고
아버진 잠꼬대도 《참 좋은 세상이로군…》
이 날을 기다려 나는요 잠이 안와요—
우리 나라 합쳐져 살기 좋을 그 날을!

(동시집 《앞지에서 응달에서》중 남반부 편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들

시간/요일	1	2	3	4	5	6
월						
화						
수						
목						
금						
토						

잡지《소년단》　　• 민청 출판사 •

영 복

라 농촌의
사업도
얻은 자료
그림 극도
을 가지게

. 사업을
사업을 해
했습니다.
사업을
로 나누어

향로 연구
임으로 하
전적지를

하여 짧
갔습니
려 가지

이나 많
무까지는
인정 시겨
라르는 화
니다. 때
하기 위
. 낮에는

글 : 서

덜컥
어째
왁자
밤은

잠이
판자
배 고
별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들

——강원도 고산 제 1 중 학교 대에서——

본사 기자 최 화 규　　　　그림 오 영 복

고산 제 1중 학교대 향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자기 고향 인민들이 어떻게 조국을 지켜 싸워왔는가를 알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은 15명으로 향토 연구 크루쇼크를 조직하여 외래 침략자를 막아낸 《로고 산성》과 《가례 산성》그리고 《세포 산성》들을 답사하는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애국심을 배우면서 전설이나 력사적 유물들도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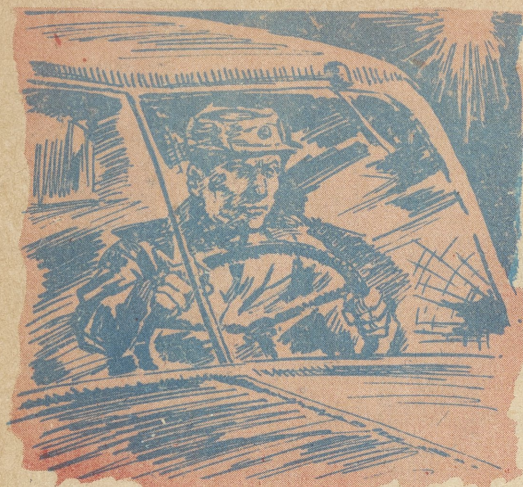
선조들의 애국심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과 누나들이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 내고 오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심을 배우는 일을 하자고 대열성자 모임에서 의논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용감히 싸운 인민 군대 아저씨와 인민들의 위훈으로 자랑 높은 철령 답사와 전선 승리를 위한 고향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 그리고 적 강점 시기에 미군 놈들과 싸운 안변 빨찌산들의 투쟁과 고향이 낳은 영웅들과의 상봉 모임들을 가지기로 의논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락원으로 꽃피여 가는 우리 나라 농촌의 어제와 오늘과 래일을 연구하는 사업도 계획했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하여 파노라마도 만들고 그림 극도 만들어 분단들에서 이야기 모임을 가지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향토 연구 크루쇼크 사업을 통하여 분단들에도 향토 연구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향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루빠로 나누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림 춘자 동무를 중심으로 한 향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우선 철령을 중심으로 하여 인민 군대 아저씨들이 싸운 전적지를 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령 답사를 앞두고 철령에 대하여 잘 아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찾아 갔습니다. 아저씨들은 철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철령은 해발 685메트르의 고지이나 많은 산'구비를 돌아 오르자면 령마루까지는 12킬로메트르나 되는 산입니다. 전쟁 시기에 동부 전선으로 군수 물'자를 나르는 화물차는 이 산령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미국놈들은 이 철령을 차단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 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라망이 달려 들어 폭탄과 기총탄을 퍼부었고 밤에는 쌍발기들이 날아 들어 한번에 50~70 개의 조명탄을 매달고 시한탄과 나비탄을 마구 떨어 뜨리였습니다.

그러나 수송부대 아저씨들은 폭탄이 작렬하는 그 속을 뚫고 수송 사업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공화국 영웅인 조 재풍, 김 수근 아저씨들은 시한탄과 나비탄을 해제하면서 자동차를 몰아 수송 사업을 보장했습니다.

인민 군대 아저씨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전쟁 승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과 홍수로 끊어진 도로를 닦으며 겨울에는 눈을 치면서 수송 사업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자료를 수집한 그들은 철령을 답사하면서 수송 부대 한 운전사 아저씨가 적의 기총탄을 맞고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산'구비에도 가 보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폭탄 구멍을 보면서 철령에 대한 그림을 그리였습니다.

답사에서 돌아 온 그들은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파노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리 중복 동무를 중심으로한 그루빠는 대령 광산을 답사했습니다. 대령 광산은 적 강점 시기에 안변 빨찌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들은 빨찌산 아저씨들이 사격 훈련하던 굴을 답사하였고 당시 빨찌산에 참가했던 군당 선전부장 아저씨로부터 학송리, 사냥리, 번지리를 해방시키던 전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찌산 아저씨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적들과 싸우면서 200 여 명의 애국자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패주할 때 철령에서 다리를 폭발시키고 인민 군대 아저씨들과 함께 미국놈들을 포위 섬멸하였습니다.

이 투쟁을 연구한 그들은 《굴할 줄 모르는 고향 인민들》이라는 그림 극을 만들었습니다.

철령과 대령 광산 답사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완전히 종합한 그들은 이야기 모임과 그림 극을 통해서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자기 고향이 낳은 강성권 영웅과 수송 사업에서 영웅이 된 구본원 아저씨를 모시고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아저씨들은 지난 날 지주놈의 머슴살이 하던 쓰라린 생활과 자본가놈들의 착취를 받아 오던 로동 생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는 옛날과 같은 쓰라린 생활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웠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사회주의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똑똑히 배웠습니다.

그 후 그들은 꽃피는 협동 조합의 견학을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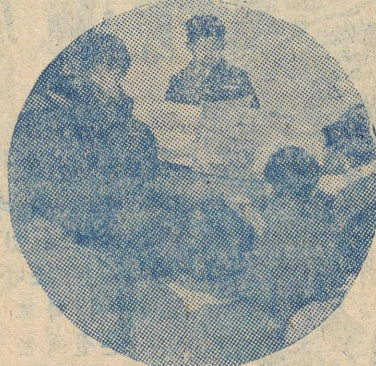
계획에는 고향 농민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 왔으며 해방 후 토지 개혁으로 농민들이 잘 살게 된 것과 사회주의 락원으로 꽃피여 가는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한 후 더욱 잘 살게 된 것을 대비하여 연구하기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제 때 리 종진이라는 지주가 어떻게 마을 농민들을 착취했는가를 늙은이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 때 남편을 대신하여 녀성 보잡이로 이름 높았던 허 금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 모임도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대에서 조직하는 향토 연구 크루쇼크 사업이 점차로 활기를 띄게 되면서 여러 분단들에서도 재미 있는 사업들이 시작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은 사회주의로 꽃피여 나가는 고향을 더욱 사랑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습을 열심히 하면서 고향의 주택 건설과 식수 사업, 랭산 모판 만드는 일들을 적극 돕고 있었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맬때마다

평북도 선천 초등 학원
제 4 학년 2반 김 명수

아침 마다 나는 붉은 넥타이를 곱게 다려서 매군 합니다. 날마다 이 처럼 내가 정성들여 매는 붉은 넥타이는 머나 먼 중국 중경 소학교 동무들이 보내준 선물이랍니다.

지난 어느날 대 모임에서 지원군 아저씨가 모범 소년 단원이라고 나에게 이 붉은 넥타이를 매여 주었지요.

그 때 나는 기뻐서 어쩔줄 몰랐습니다.

비록 중국 말은 몰라도 나는 지원군 아저씨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중국 동무들에게 나는 무엇을 선물할가? 감사의 편지를 어떻게 쓸가?》.

지원군 아저씨는 나의 손을 꽉 잡아 주면서 정다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넥타이는 내가 고향에 휴가 갔을 때 그 곳 소년 선봉대원들이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선물을 통하여 두 나라 어린이들의 친선이 더욱 두터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지원군 아저씨의 이 이야기에서 나는 중국 벗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이 날 나는 이 붉은 넥타이를 매고 동무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소년단 경례를 힘 있게 하였습니다.

언제나 이 붉은 넥타이를 맬 때마다 가슴에는 중국의 친근한 벗들에 대한 친선의 정이 부풀어 오르군 합니다.

서로 존경하여

청진 제 1 중 학교대 전 경자

지난날 우리 학교대 제 18 분단(남자)에서는 21 분단(녀자)과 련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의 사업 경험을 나누며 앞으로 남자 동무들과 녀자 동무들이 서로 사이 좋게 지낼 데 대한 것도 의논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학생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버릇부터 고치자고 하였습니다. 일부 남자 동무들에게는 녀자 동무들을 깔보며 허튼 말을 하는 버릇이 있으니까요. 이리하여 두 분단은 서로 친절히 지내면서 련합 분단 연예 써클 모임을 가지는 등 학교대의 모범이 되였습니다.

그 후 각 분단들에서도 18 분단과 21 분단의 모범을 받아 한결 같이 좋은 말을 쓰며 서로 사이 좋게 지내도록 힘써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생말하던 버릇을 없애고 친근하게 지내자니 서먹서먹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습관으로 되였고 장난 꾸러기던 일부 남자 동무들까지도 퍽 점잖아졌으며 녀자 동무들을 얕보는 일이 없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더욱 화목해졌으며 서로 힘을 모아 소년단 사업을 더 잘 해 나가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의 건설자로 준비한다

그림 림 영환

—평남 개천 제 2 중학교 대에서—

본사 기자 신 진균

3월 12일 오후 나는 농촌 마을에 자리잡은 개천 제 2 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운동장에 들어 섰을 때는 마침 하학종이 울리고 각 교실에서 삽과 괭이, 삼태기들을 든 소년단원들이 몰려 나왔다.

그들은 두세 명씩 패를 지어 교문을 나서는 것이였다.

알고 보니 그들은 《바닥 파기》 사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바닥 파기》 사업은 실습지에 낼 퇴비와 부식토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랑창, 시궁창, 변소'간 바닥 등을 파내는 일이였다.

벌써 학교 옆 실습지에는 분단별 패말이 박혀 있고 매 포전마다에는 분단별로 모아다 놓은 십 여 톤의 퇴비와 부식토들이 쌓여 있다. 실습지 봄갈이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의 안내를 받아 이 학교 온실에 가 보았다.

온실에는 실습지에 가식할 오이, 도마도 등 채소류의 모종들과 3년 동안이나 키워 온다는 고추며 담배 등 작물들을 비롯하여 가지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온실 한 쪽 구석에서는 몇몇 소년들이 한창 면화 《영양 단지 모판》을 만들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우리들이 온실에 들어선 것을 모르는 모양이였다.

《애 근봉아, 너 〈영양 단지〉를 왜 하는지 알아?》하고 한 동무가 옆의 동무에게 물었다.

《이젠 나도 그쯤은 알어, 그야 뭐 생육기간을 길게 하고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하여 목화 송이가 더 많이 달리고 활짝 필 수 있게 하는거지 뭐》 몸'집이 큰 근봉이란 동무가 약간 멋적은 듯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그럼 일찌기 온실에 심었다가 가식하면 더 좋을게 아니야?》.

《씨, 면화의 뿌리는 직근이거든, 그러니까 온실에서 오래 키우면 뿌리가 길어져서 가식할 땐 활착이 나쁜거야》.

이렇게 두 동무가 싱갱이를 하듯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또 한 동무가 불쑥 끼여들며 말 참견하는 것이였다.

《그까짓 이야기는 그만 두고 5개년 계획 말에 가서 인구 1인당 옷감이 몇 메트르나 생산되는지 이야기해 봐》.

《18 메트르 이상이지 뭐야》하고 근봉이란 동무가 선뜻 또 대답하는 것이였다.

《맞았어, 그런데 옷감 짜는 데 가장 귀중한 원료가 면화거든, 그래서 5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면화 6만 4천 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한 거야》.

나는 그들에게 마음이 끌려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올해 실습지 면화 재배를 맡은 제 2분단 동무들이였다. 2분단에서는 올해 40평의 실습지 면화 밭에서 34 킬로그람의 면화를 거두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올해 실습지 계획을 의논하던 분단 모임에서는 지난 해 옥수수 한 평에서 3.4 킬로그람을 거둔 경험이며 고구마의 덩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 줌으로써 많은 수확을 거둔 경험들을 교환하고 올해 면화 재배에서는 영양 단지 가식법을 배워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영양 단지 모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였다.

지금 전체 분단이 동원되고 있는 《바닥 파기》 사업도 2분단 동무들이 분단 모임에서 처음 내놓은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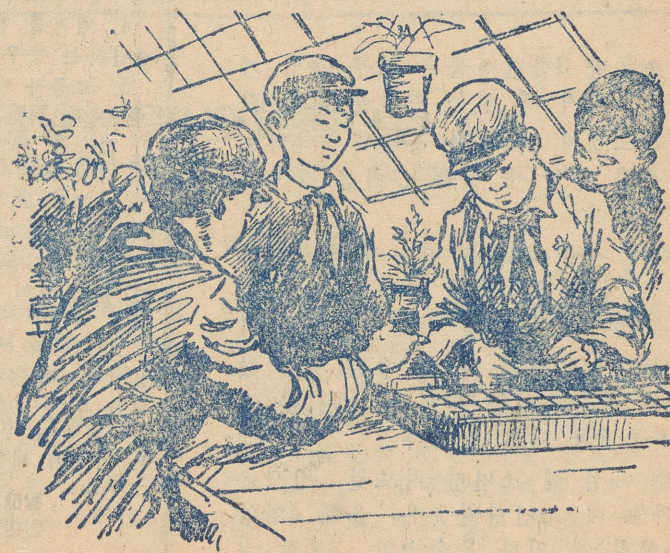
이렇듯 2분단 동무들은 실습지 작업에서 전체 분단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해까지는 2분단 동무들 중에도 농사일하기를 싫어 하며 실습지 작업에 열성을 내지 않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해 봄이였다. 옥수수를 파종하기 위해 분단에서는 퇴비를 나르며 밭을 일구었다. 그런데 근봉이는 퇴비 다루기가 싫어서 밭을 일구는 일에만 참가하려 하였다. 이것을 눈치챈 분단 위원 상민이가 《애 근봉아, 넌 어서 땅이나 파 엎으렴, 어지러운 일은 우리가 할게》하고 우수개를 피우며 말했던 것이다. 그제야 근봉이는 마지 못해 퇴비 나르는 일에 참가하기는 했으나 냄새를 피하느라고 늘 앞에 서서 날랐다.

그 후 분단에서는 농사일 하기를 싫어하는 동무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하여 때때로 협동 조합 견학을 조직하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흥겹게 일하는 모습과 우리 나라 농촌의 전망을 보고 듣고,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견학에서 돌아 오면 반드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가졌으며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할 자기들의 결의를 다지군 하였다.

특히 대 위원회가 조직한 지난 해 졸업생 김 인호 동무와의 상봉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를 다닐 때 실습지에서 실험과 실습을 꾸준히 하였고 3학년 때부터는 농업 기술 크루쇼크에서 새 영농 지식을 열심히 배웠다는 인호 동무는 지금 협동 조합 랭상 모판 관리 책임자로 훌륭히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학교 선생님들

이 지도하는 초, 고중 졸업생들로 조직된 농업 기술 크루쇼크에서 농산 기수 자격 검정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의 부름을 따라 농촌에 나가 일하는 인호 동무의 보람 있는 생활과 훌륭한 경험은 많은 동무들에게 농촌에 나가 일하면서도 자기만 노력하면 로동을 통하여 직접 많은 것을 체험하고 우수한 기수, 기사로 준비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이제는 근봉이도 학교를 졸업하면 농촌에 나가 일하리라 굳게 결심하고 실습지에서 열심히 선진 영농 기술을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작업은 거의 끝나갔다. 면화 《영양 단지 모판》은 훌륭하게 되여 갔다.

《이만하면 인호 형님처럼 앞으로 조합의 면화 관리 책임자는 문제 없겠지?》 근봉이가 이렇게 뽐내는 바람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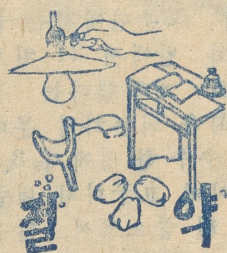
대 위원회는 해마다 1,200 평의 실습지에서 인민반 동무들은 채소전을, 초급반 1학년은 옥수수와 저류, 2학년은 면화, 3학년은 과수원과 벼의 재배를 맡아 하도록 분공하고 파종으로부터 수확할 때까지 가꾸며, 실험하며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특히 초급반 3학년생들은 모두 농업 기술 크루쇼크에서 새 영농 지식을 더욱 깊이 연구함으로써 이제 곧 농촌에 나가드라도 훌륭히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지금 그들은 감자의 야로비쟈찌야며, 면화와 옥수수의 영양 단지 가식법이며, 벼의 랭상 모판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척척 해 낼 수 있게 되였으며 생물 과목에서는 80%에 가까운 우등, 최우등생을 내고 있였다.

온실을 나설 때 소년단 지도원 선생은 《우리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올해 〈영양 단지 가식법〉에 의한 옥수수의 2모작 실험도 합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 끼리 척척 일해 나갑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이처럼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해마다 실습지 작업을 통하여 영농 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전통을 쌓아왔다.

로동을 즐기는 그들은 우리 당의 부름을 따라 장차 사회주의 농촌의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훌륭한 결의를 다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꾸준히 새 영농 기술들을 배워 나가고 있었다.

우리 분단에서는《절약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돕자》라는 모임을 가지였습니다.

1.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많이 쓰이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하여 우리는 저녁에도 어둡기 전엔 전등을 켜지 않으며 밤에 잘 때는 반드시 전등을 끄도록 했습니다.

2. 잉크를 쏟아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곽을 만들어 잉크 병을 넣어가지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3. 연을 띄우다 실을 함부로 버리거나 옥수수 알로 고무 총을 쏘는일이 없도록 하며 녀학생들의 《오자미》에도 곡식을 넣지 말고 모래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4. 백지를 휴지로 쓰거나 학습장을 뜯어 장난하는 동무들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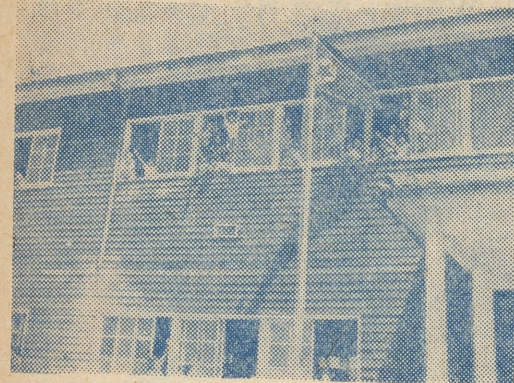
5. 로동자 아저씨들은 1분 1초도 아껴가며 증산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특히 체육 시간 같은 때 종이 나도 뜨게 동작하여 시간을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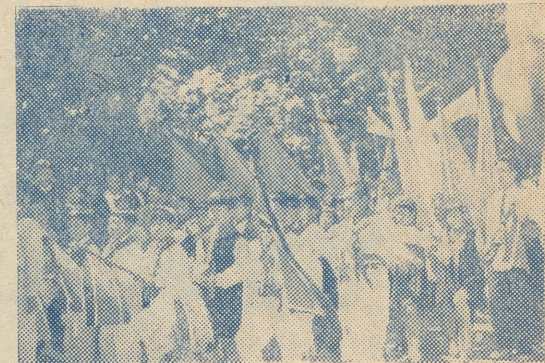
6. 책상에 매달려 장난하거나 책상을 못쓰게 만들고도 고치기 싫어 남의 것과 바꾸어 놓는 일이 없도록 하며 못쓰게 되면 제때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절약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면 생각되는 그때그때에 동무들에게 알려 주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적은 것이라도 절약하는 기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신원 제 2중 학교
인민반 4의 1 유 광 순

일본에 있는 조선 소년들의 생활

← 민족적 명절인 8. 15 해방의 날! 일본에 있는 《히가시 고베》 조선인 소학교 동무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미나도구》에 있는 조선인 학생들의 5. 1절 시위 →

← 조선인 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반대하여 투쟁한 4·24 6 주년을 기념하면서 애국가를 연주하는 《히가시 고베》조선인 소학교 연예 써클원들

작 문

조국의 영화를 보고

도꾜 조선 제 3 초급 학교 제 6학년 김 건일

우리들은 며칠 전에 조국의 영화를 보았다.

영화에서 우리들은 우리 조국 인민들이 8. 15 해방 기념일을 즐겁게 맞는 모습과 훌륭하게 복구 건설되는 조국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 나라 인민들은 모두다 김 일성 원수를 받들고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였다.

또한 영화는 지난날 미제와 싸워 이긴 인민 군대 아저씨들의 용감성도 보여 주었다.

이것을 보는 나는 얼마나 조국이 그립고 가고 싶은지 몰랐다.

지금 일본에 있는 재일 동포들은 한마음으로 조국을 그리워하며 북조선에 빨리 가고 싶어 한다.

강철의 중대와 양근사 영웅

——지 원군 영웅전집에서——

정 종균 역 　　　　그림 남 현주

이 글은 양 근사 영웅 아저씨의 투쟁 이야기이다.

양 근사 아저씨는 1950년 10월에 중국 인민 지원군에 참가하여 중대장으로 용감히 싸우다가 장진 하갈오리 1071 고지 전투에서 영광스럽게 희생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중국 인민 지원군 양 근사 아저씨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 ×

온 밤 가렬한 전투가 끝나고 먼동이 트자 새벽 노을이 먼 산을 붉게 물드렸다.

양 근사 아저씨는 중대를 거느리고 고지를 향하여 내달렸다. 아저씨의 몸은 수류탄을 넣은 주머니로 휩싸였고 허리에는 묵직한 권총이 힘 있게 꽂혀 있었다.

중대가 고지에 오르자 양 근사 중대장은 주위를 살펴 보며 마음속으로 웨쳤다.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진지인가!》

아저씨는 대대장 앞에서 받은 임무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1071 고지를 지켜 내며 한 치의 땅도 원쑤들에게 내 주지 말라는 임무였다. 1071 고지는 함흥과 원산으로 통하는 길과 멀지 않은 곳에 철로를 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는 전략상 아주 중요한 곳이였다.

다음 날엔 반드시 이 고지를 빼앗기 위한 적들의 맹렬한 반격이 예상되였다… 먼동이 트자 함박눈은 더욱 퍼 부었다. 전호에 엎드린 전사들은 눈에 파묻히고 발은 구두에 얼어 붙었으며 손마저 얼어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적들의 포탄은 고지 우로 날아 오기 시작하였다. 포사격은 점점 맹렬해 갔다. 고지는 순식간에 파편과 돌덩이, 누런 흙으로 뒤덮였다. 뾰족하던 고지는 어느새 제 모습을 잃고 불에 타는 평편한 고지로 되였다. 예상한 대로 적들은 고지로 기여 오르기 시작하였다.

양 근사 중대장은 힘있게 웨쳤다.

《전투 준비!》 적들이 30 메트르 앞까지 다가 왔을 때 지원군 아저씨들은 갑자기 불벼락을 퍼부어 원쑤놈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다.

첫 공격에서 격퇴 당한 적들은 미친 듯이 폭격으로 고지를 또 한 바탕 뒤집었다. 땅크의 엄호하에 약 두 개 중대의 적들이 산'기슭에 나타났다. 놈들은 차츰 고지에 가까와 오는 것이였다.

양 근사 중대장은 전투원들에게 웨쳤다. 《조국을 위하여, 조선 인민을 위하여 돌격 앞으로!》 끝까지 고지를 지켜 내려는 전투원들은 기여 오르는 적들을 맞받아 복쑤의 무리 죽음을 주었다.

…포사격은 다시 계속되였다. 적 비행기는 고지 상공에서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적들은 또 다시 고지를 향해 올라 오고 있었다.

중대에는 부상자와 전사자가 점점 늘어 가고 전투 대렬은 줄어 들었다. 그러나 전투원들은 락심하지 않았다. 지원군 아저씨들은 적들을 진지 가까이 접근시키고 불벼락을 퍼부었다.

놈들은 이번에도 도망쳐 갔다. 중대는 세 차례에 걸치는 적들의 반돌격을 용감하게 물리쳤다.

진지 앞 골짝은 놈들의 무덤으로 변했다. 주위는 잠잠해지고 고지도 조용하였다.

양 근사 중대장의 명령대로 전사들은 무기와 전호를 수리하며 적 시체에서 수류탄을 모아 오고 희생된 동지들의 시체를 고지에 묻었다.

어려운 전투는 지원군 아저씨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며 얼음산, 불바다 속에서 강철의 전사들은 철벽의 진지를 지켜 내고 있었다.

× ×

눈이 언제 멎었는지는 모르나 날씨는 흐리터분하였다. 낮게 드리운 구름은 1071 고지를 내려 누를 것만 같았다. 령하 40도나 되는 추위에 바람은 쌩쌩 불어 땀배인 옷 속에 스며 들며 손발은 얼어서 이미 감각을 잃었다. 게다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배'속까지 얼어 드는 것만 같았다. 시간은 마치 1 분이 1년이나 되듯이 지루하였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양 근사 아저씨가 손목 시계를 들여다 보니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모두 7 자와 8 자 사이에 멎어 있었다. 이 때가 오후 7 시경일 수는 없었다. 양 근사 아저씨는 조선의 겨울은 오후 5 시에서부터 6 시 무렵이면 벌써 컴컴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귀에 대여 보니 잠자코 있었다.

아저씨는 전투 속에서 놈들의 돌격을 물리친 회수로 시간을 알아 내는 것이 습관되여 있었다…

그럼 몇 차례의 전투였는가? 여덟 차례였는지 아홉 차례였는지 똑똑치 않았다.

《그걸 셈 세서는 무엇해! 어쨌던 하갈오리에 있는 원쑤를 포위 섬멸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 진지를 지켜내면 되는 게지》 양 근사 아저씨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지휘관인 양 근사 아저씨는 《어쨌던 부대를 정돈해야겠다》고 생각하자 진지를 살펴 보았다. 앞에는 8 반장 아저씨, 류 옥정 아저씨와 오복 아저씨가 있고 뒤에는 중기 소대장과 사수가 있었다. 대원은 퍽으나 줄어 들었다.

이 때에 8 반 전사 강 자의 아저씨가 수류탄을 운반해 왔는데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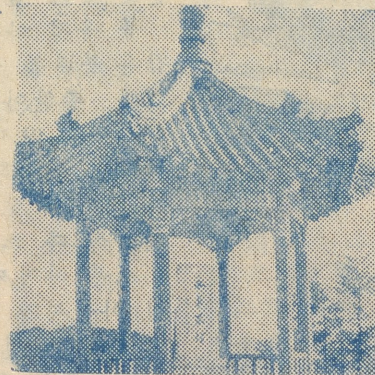
《친애하는 3 중대 동무들, 동무들은 강철의 중대입니다. 그 진지를 지켜내십시요. 나는 동무들이 반드시 지켜내리라고 믿습니다—왕 국동》

양 근사 아저씨는 부 대대장이 쓴 이 글을 몇 번이고 읽었다. 이 편지는 아저씨를 무한히 고무시켰다. 양 근사 아저씨는 즉시로 전사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었다.

《우리들은 고지를 능히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전사들의 힘 있는 환호성이 울렸다.

양 근사 아저씨는 전사들을 살펴 보았다. 불에 끄슬은 얼굴에서는 두렷두렷한 검은 눈'동자가 빛났다.

《이 진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용감 앞에는 원쑤들의 굳센 반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양 근사 아저씨는 모자를 눌러 쓰면서 우렁차게 연설을 하였다.

양 근사 아저씨를 바라보는 전사들은 그의 이야기 속에서 큰 힘을 찾아 내듯 흥분하였다. 양 근사 아저씨는 더욱 힘있

게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들은 놈들보다 더 완강해야 합니다. 탄알이 부족하면 총탁으로, 또는 곡괭이로라도 원쑤를 쳐부시고 진지를 꼭 지켜 내야 합니다. 진지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능숙하게 놈들을 쳐부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능히 원쑤를 소멸할 수 있으며 진지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 의견이 없습니까?》《없습니다. 탄알과 수류탄으로 해 봅시다》 류 옥정 아저씨가 기관총탁을 탁 치면서 높이 웨쳤다.

양 근사 아저씨는 왼손을 쳐들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장엄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모두 원쑤들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조선 인민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이 진지를 지킵시다!》 령마루에 있는 모든 전사들은 양 근사 아저씨의 호소를 자기의 맹세로 삼았다. 사람의 의지란 그 얼마나 굳센 것인가! 굶주림과 추위, 피로와 그 무엇도 그를 이겨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전투는 다시 진행되였다. 놈들은 이 고지를 기어코 빼앗으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면서 대여 든다. 미국 침략군은 이 령마루를 평지로 만들려고 수천 만 개의 폭탄을 퍼붓는다. 그러나 이 령마루를 지키는 지원군 영웅들은 한 개 대대로, 한 개 련대로, 아니 천 백만으로 불은 것 같았다. 8 반 반장 아저씨는 한 손에는 자동총을 다른 손에는 수류탄을 쥐고 《동무들! 돌격 앞으로! 나에게는 탄알과 수류탄이 얼마든지 있소》 하고 자동총을 휘두르면서 수류탄을 던졌다. 몇 번이고 돌격하던 8 반장 아저씨는 그 밉살스러운 놈들의 총알에 맞아 넘어졌다.

류 옥정 아저씨는 이를 앙물고 머리에 감은 붕대를 잡아 제끼면서 기관총을 휘둘렀다. 총알이 그의 모자 창을 끼고 나가자 아저씨는 모자를 벗어 던지고 마지막 탄알까지 정확히 원쑤를 묘준하였다. 퍼붓는 포탄에 맞고서도 아저씨는 최후의 탄알까지 다 쏘고서야 눈을 감았다.

오복 아저씨는 8 반장 아저씨와 류 옥정 아저씨가 희생되는 것을 보자 온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느꼈다.

아저씨는 옆에 남아 있는 수류탄을 주섬주섬 걸어 들고 또 자동총도 쥐고 전호에 의지해서 밀려 오는 적들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아저씨는 자동총으로 쉴새없이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퍼부었다.

달려드는 적들은 그의 앞에서 줄을 지여 쓰러졌다. 아저씨는 다시 고지 우로 올라 가서 아래로 내리 쏘았다.

갑자기 어깨가 뜨끔하자 손맥이 풀리며 아저씨의 자동총이 땅에 떨어졌다.

가슴과 허벅다리에서 시뻘건 선지피가 쏟아졌다. 한번 넘굴었던 아저씨는 다시 자동총을 집어 들고 주위를 살펴 보니 양 근사 중대장은 여전히 사격하고 있었다. 오복 아저씨는 있는 힘을 다하여 가까스로 양 근사 중대장에게로 기여 갔다.

양 근사 아저씨는 누가 기여 오는 것같아 머리를 휙 돌려 보고는 계속 맹렬하게 사격하였다.

《중대장 동무…》 오복 아저씨의 웨침 소리를 듣자 양 근사 중대장은 허리띠에서 탄알을 꺼내 주고 또 사격하였다.

오복 아저씨는 총알을 다시 재우고 계속 사격하다가 련방 터지는 포탄에 의하여 마침내 자동총을 힘껏 그러 안고 두 눈을 감았다.…

《중기 탄알이 떨어졌습니다》 포연 속에서 중기 소대장이 기여 와서 보고하였다.

《사람은?》 양 근사 아저씨가 물었다.

《나 외에 부상당한 사수가 남았습니다》

《후퇴하시요》 양 근사 아저씨가 명령하였다.

《중대장 동무는?》

《내가 있는 한 진지는 고수될 수 있소, 무기는 동지들의 피로써 바꾸어 온 것이요. 이는 혁명의 재산이요, 잃을 수 없소 빨리 후퇴하시요》.

중기 소대장은 무엇을 물어보려 하였으나 《이는 명령이요》 라고 양 근사 아저씨는 엄격하게 말하였다.

중기 소대장은 한참 주춤하다가 중기 진지로 가려 하였다. 이 때 《지도원 동무에게 말하시요…》 하고 양 근사 아저씨는 다시 중기 소대장을 불러 세웠다. 그러나 중기 소대장이 몸을 돌이키자 양 근사 아저씨는 《더 말할 것 없소. 지도원 동무는 제 3 중대를 잘 인솔할 것이요…》

산마루는 죽은 듯 고요해졌다. 중기 소대장 아저씨는 뒤'산마루로 오르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뒤돌아 보군하였다.

양 근사 아저씨는 홀로 령마루에 서서 사방을 살펴 보았다. 전우들은 지금도 원쑤들을 포위 섬멸하고 있다. 양 근사 아저씨는 고립되지 않았는데 이 령마루만은 온통 너저분한 원쑤들의 시체일 뿐 이상하게도 고요하다.

양 근사 아저씨는 군모를 벗어 들고 먼지와 재'가루를 털어 버리고는 다시 모자를 단정하게 눌러 썼다. 솜옷까지 바로 잡아 입은 아저씨는 령마루를 한 바퀴 돌면서 살펴 보았다. 아저씨는 쓸만한 총과 한 개의 폭탄을 신변에 놓고 적당한 데를 골라 음폐하였다. 아저씨의 두 눈은 산밑의 원쑤놈들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었다.

양 근사 아저씨는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했다. 그러나 아저씨는 《내가 있는 한 고지는 고수될 수 있소.》 라고 한 맹세를 실현할 굳은 결심과 신심으로 충만되여 있다.

놈들이 또다시 맹렬하게 산마루를 들볶기 시작하였다. 산마루는 포연과 파편으로 휩싸인다. 미국 침략군이 돌격해 오는 소리는 더욱 가까와졌다. 퍼런 바탕에 흰 글'자로 새긴 미 륙군 1 사 군기를 든 병사가 기'발을 령마루에 꽂으려고 할 때였다. 미군 장교도 지꺼리면서 나타났다.

양 근사 아저씨는 용솟음쳐 일어서며 권총을 틀어 쥐였다. 총소리와 더불어 미군 장교가 쓰러지며 군기도 넘어졌다. 원래 쉽게 령마루를 점령할 수 있다고 꿈꾼 놈들에게 벼락같은 불비가 쏟아지자 놈들은 당황하였다.

기는 놈은 기고 뛰는 놈은 뛰고 하는 놈들의 꼴은 까마귀 떼처럼 망칙하였다.

양 근사 아저씨는 폭탄을 그러 안고 심지를 뽑았다. 심지는 푸푸—하면서 연기를 내 뿜는다. 양 근사 아저씨는 발걸음을 크게, 힘 있게 옮기면서 놈들의 무리 속으로 걸어 갔다. 아저씨의 발걸음은 산마루를 뒤흔든다. 놈들이 도망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양 근사 아저씨는 미군의 기'발을 짓밟으면서 폭탄을 으스러지게 껴 안고 앞으로 다가 간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 소리, 시커먼 포연…

침략자는 영영 이 영웅의 산마루에 발을 붙이지 못하였다. 양 근사 아저씨의 빛나는 영웅적 모습은 영원히 이 령마루에 서 있다. 금빛 태양은 산마루를 비쳤다. …

× ×

《양 근사 동무를 향하여 배우며 양 근사 동무처럼 싸우자!》 열어 붙은 장진 호반 전투와 황초령 전투, 한강 이남과 3.8선 부근의 전투에서 그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마음 속에 양 근사 아저씨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웅의 길을 걸었던가!

지원군 사령부와 정치부에서는 1951년 5월 9일 명령으로 양 근사 아저씨가 살아서 거느린 중대에 《양 근사 중대》의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하였고 양 근사 아저씨에게는 《특급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양 근사 중대》의 영웅들은 《양 근사 중대》라고 새긴 큰 붉은 기를 높이 추켜 들고 새로운 승리에로 내달렸다.

중대원들은 고난 속에서도 양 근사 아저씨의 이름을 묵묵히 불렀으며 전투 속에서도 그 이름을 높이 웨치며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금빛 찬란한 해'빛은 공화국 북반부의 땅을 골고루 비치고 있다. 황초령에 쌓였던 눈은 녹아 내려 장진강 물은 더욱 물'결친다. 장진호의 푸른 물은 더욱 아름다우며 사랑스럽다. 백 오십 척의 산마루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는 멀리서 보면 마치 비단을 늘여 놓은 것만 같다.

여기 1071고지 우에 《永垂不朽》(영원히 잊지 않으리라)라고 새긴 흰 기념비가 하늘 높이 솟아 있다. 이 기념비는 장진군 인민들이 여러달 동안 함흥에서부터 황초령을 넘어 영웅적인 위훈을 남긴 이 산마루에 옮겨 온 것이다.

푸른 소나무들이 아담스럽게 묘지를 둘러 싸고 붉은 꽃송이가 주단처럼 눈 부시다.

제사'날이였다. 높이 세운 솔문에는 조선 글과 중국 글로 양 근사 영웅 아저씨의 공적을 찬양하는 표어가 나붙어 있다. 령마루에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양 근사 영웅촌》이라고 불리우는 신흥리 인민들과 《양 근사 영웅》의 이름을 간직한 한 작업반의 로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언제나 묘지를 잘 가꾸어 온 소년단원들이 온 것이다.

기념비 앞에서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 선생이 이야기를 하신다.

《우리 조선 땅이 다시 평화로울 때 우리들은 가장 경치 좋은 곳을 골라서 중국 인민 지원군 렬사들의 묘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들은 양 근사 렬사를 위하여 앞으로 더 큰 대리석 기념탑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늘 탑 앞에 와서 놀 수 있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누가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지켜 내였는가를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뻐꾹새가 뻐꾹뻐꾹 울어댄다. 장진호에는 여러 척의 배들이 미끄러져 오며 호수 우에 둥그런 무늬를 일으키는데 노래'소리가 그 우로 파동치며 흐른다. …

간첩은 빈틈을 노린다

본사 기자 리 종근 그림 오 영록

작년 10월 어느 날이였다. 내무서에 한 젊은 아주머니가 찾아 왔다. 그 아주머니는 자기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배전부에 있는 그 사람은 아주 친절했다. 아주머니네 집 마을에 정전이 되면 찾지 않아도 나와 고쳤다. 아주머니네 집 전기가 고장 났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나와 전기 고장을 찾아내여 고쳐 주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고장이 안나도록 하겠다고 이 곳 저 곳 살펴 주는 것이였다. 그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그는 《수고는 무슨 수고요 배전부에 있는 우리가 자나 깨나 할 일인데요…》 하고 겸손하게 대답하군 했다.

뒤'공무니에 뺀치를 찬 그는 지나 가던 길에도 들려서 전기 고장이 없는가를 물었다.

아주머니는 그 전기 기술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웬 일인지 전기 고장을 고치기는 하나 고장이 자주 생기군 하였다. 전기 고장이 생기면 으레 그 사람이 나왔다.

어느듯 그 사람은 아주머니네 마을 사람들과 낯익은 사이가 되였다. 전기 고장을 고치다가 쉬는 참이면 이것 저것 이야기를 벌려 놓게 되였다. 무슨 이야기 끝에 그 사람은 아주머니에게 불쑥 《혼자서 퍽 고생스럽지요? 어서 통일이 돼서 모여 살아야지요…》하고 동정하는 말을 꺼냈다. 《어떻게 우리 집 내막을 잘 아세요?》하고 저으기 놀래며 물었더니 그 사람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하는 것이였다.

이 때부터 그 사람은 아주머니께 남조선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하였다.

아주머니는 그가 남조선 사정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감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였다. 전기 고장을 고치려 나왔던 길이라 하면서 그는 아주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남조선에서 남편이 아주머니를 몹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였다.

그 사람은 아주머니가 자기의 말에 끌린다고 짐작해선지 자기가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는 눈치를 보이였다!

아주머니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그 사람이 수상한 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아주머니는 내무서에 그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알리려 온 것이였다.

× ×

그 수상한 사람은 곧 체포되였다. 미군이 파견한 간첩이였다.

간첩 강 봉건은 친일파의 아들로서 해방 후 북반부에서 나라 돈 10만 원을 훔쳐 가지고 남조선에 도망쳤던 놈이다.

1949년에 미군 간첩이 된 그는 북반부에 간첩들을 들여 보내서 반동 단체를 조직하며 폭동을 일으키라는 미군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북반부에 기여들었던 놈들은 몽땅 붙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강 봉건은 간첩 기관의 돈을 부러 먹으면서 타락했다.

미군 간첩 기관은 이를 리용하여 강 봉건을 《리 승만을 반대하는 자》 《나라(리 승만)의 돈을 훔쳐낸 강도》《빨갱이》라고

선전하여 가짜 공산주의자로 꾸며 냈다. 그리하여 거짓 재판을 하고는 그를 서대문 형무소에 들여 보내여 애국자들의 비밀을 알아 내려 했으며 1950년 6월에 서울이 해방될 때에는 의용군에 기여 들게 하여 간첩 노릇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놈들은 이에만 머물지 않았다. 미군 간첩 기관은 강 봉건을 인민군 포로 수용소에 들여 보내여 북반부에 들어 갈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애국자로 가장한 강 봉건은 ××시 배전부에 기여 들어 간첩 활동을 시작하려고 애썼다.

이 놈은 열성 있게 일하는 체 하면서 뒤에서는 반동 단체를 조직하여 폭동을 일으키며 국가 비밀을 알아 내여 알리라는 미군 간첩 기관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갖가지로 날뛰였으나 걸음마다 실패하고 말았다. 몇번 전기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하였을 뿐이였다.

이러던 가운데 윤 아주머니의 남편이 후퇴 시기에 미군 한테 끌려 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 그 아주머니를 피여 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부러 전기를 고장 내고는 고치는 체 했으며 《열성》을 부렸던 것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교활한 간첩일지라도 경각성 높은 인민들과 내무원 아저씨들 앞에 꼼짝 못하고 붙잡히고 마는 것이다.

개성 고려 중학교 초급반
1의 9반 최 영희

나를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귀엽게 키워 주시던 삼촌, 지금은 어지러운 남조선 그 어느 곳에서 헤매고 계시는지?

나의 삼촌은 미제의 앞잡이 리 승만이가 통치하던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늙은 할머니와 부모 없는 나를 돌보시기에 얼마나 굶주리며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삼촌은 나를 학교에 못 보내서 늘 안타까와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화국의 따뜻한 품안에 안긴 나는 마음껏 배워 오늘은 떳떳한 소년단원이 되였고 중학생이 되였습니다.

늙은 할머니와 단 둘이 지내면서도 걱정없이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도 나는 양지 바른 산밑에 웅장하게 지은 학교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나는 행복한 하루의 생활을 적으려고 일기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나의 머리에는 즐거운 나날이 선히 떠 오릅니다.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도운 일이며, 유쾌한 체육 연예 사업, 박연 폭포의 푸르청청한 물과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던 야영의 나날을!

나의 이 행복스러운 모습을 삼촌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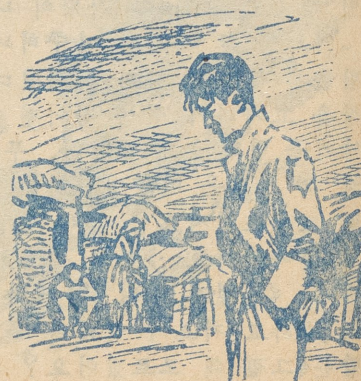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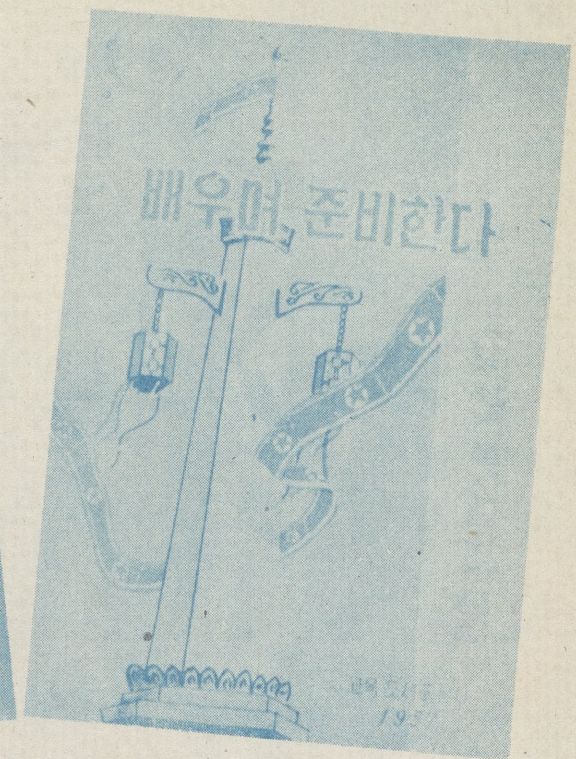
나는 삼촌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면 부러울게 없겠습니다.

나의 삼촌을 강제로 끌어가고 보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입니까!? 미제입니다.

나는 웨칩니다.

《미군은 당장 물러 가라!》

삼촌도 이렇게 웨치리라고 믿습니다.

하루 빨리 삼촌과 함께 모여 살고 싶습니다.

이책들을 읽으십시요

《이소프 우화집》

이 책은 지금부터 약 2천 5백년전 고대 희랍의 반전설적인 우화 작가 이소프의 우화 48개를 묶은 것이다.

이 《이소프 우화집》은 우리들에게 그저 웃고 즐길 동물 이야기나 소박한 옛날 사람들에 대한 평범한 교훈만을 보여 주려는 것은 아니다.

이 우화집에서 우리는 재미 있는 동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활에서 허영심과 탐욕과 략탈 행위를 미워하고 잔인한 행동을 폭로하며 당시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볼 수 있다.

《배우며 준비한다》

이 책에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품 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는 학생들의 훌륭한 작문, 문학 작품, 미술 공예 작품들이 소개되여 있다.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8년 4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4월 22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5 호 (총103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900 값 25원 80,000부 발행